



세인트루이스 김광현이 1일(한국시간) 부시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애리조나와 홈경기 2회말 2사 1·2루 타석에서 선제 결승 2타점 2루타를 터트리고 있다. 세인트루이스(미 마주리주) | AP뉴시스

북 치고 장구 치고...김광현 68일 만에 승리

10전11기 끝에 시즌 2승 ML 첫 결승 2루타+타점

“간절함이 승리 원동력”...실트 감독 “자신감 돋보여”



‘안산공고 4번타자’ 출신의 위용을 제대로 뽐냈다. 팀 승리가 꼭 필요한 순간, 투수로는 물론 타자로도 제 역할을 다했다.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10전11기 끝에 시즌 2승(5패)째를 챙겼다.

김광현은 1일(한국시간)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홈경기에 선발등판해 5이닝 3안타 3볼넷 1사구 5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6-1로 앞선 6회 초 마운드를 내려갔고, 세인트루이스가 7-4로 이겨 김광현은 승리투수가 됐다. 4월 24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이후 68일, 11번째 경기만의 승리다. 시즌 평균자책점도 3.98에서 3.79로 낮췄다.

마운드 위에선 주무기 슬라이더의 장점을 한껏 활용하며 타자들의 헛스윙을 유도해냈다. 여기에 타석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김광현은 0-0으로 맞선 2회말 2사 1·2루 첫 타석에서 애리조나 선발 라일스 스미스를 상대했다. 볼카운트 2B-1S서 4구째 싱커를 받아쳐 좌중간을 갈랐다.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2루타. 김광현의 시즌 2호 안타이자, ML 첫 장타와 타점이었다.

김광현은 경기 후 화상 인터뷰에서 “이전에는 승리를 챙기지 못하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6~7경기 정도였다. 내 최고기록 같다. ‘다음 경기엔 이기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자책했다. 이어 “최대한 실점하지 않으며 한 타자에 집중하자고 생각했다. 그런 간절함이 행운으로 따라왔다”고 덧붙였다. 또 “외야로 타구를 보낼 생각이었는데 전진수비를 하고 있어 운 좋게 2루타가 됐다”고 밝혔다.

2루타를 치고 덕아웃에서 동료 투수 애덤 웨인라이트와 주고받은 세리머니에 대해선 “웨인라이트가 타격도 잘한다. ‘홈런은 언제 보여줄 거냐’라고 물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여준다고 하더라. 내일(2일) 선발등판하는데, 이날 치지 않을까”라며 웃었다.

김광현이 밝힌 비결은 배트 교체였다. 배트 무게를 조금 낮춰 훈련한 덕에 적시타가 나왔다고 말했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 역시 “결정적인 타구로 리드를 안겼다. 운동 신경이 좋다. 타석에서 자신감도 돋보인다”고 칭찬했다. 1루수 폴 골드슈미트 역시 “흐름을 안겨주는 중요한 안타였다”고 엄지손가락을 세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1위
ABC 광인 유로·발명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1년 7월 2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한국, 월드컵 최종예선 이란·이라크·UAE·시리아·레바논과 한조

모래바람에 갇힌 벤투호 월드컵 본선행 가시밭길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가 2022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최종판로에서 강호 이란을 비롯한 중동 5개국에 둘러싸였다. '조 편성에 만족하는 나'는 질문에 벤투 감독 역시 "행복하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질문"이라며 부담스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스포츠동아DB

힘겨운 중동 원정+침대축구 이종고 이란과의 4회연속 최종예선전 악연 이란 제외하면 상대전적 모두 앞서 9월2일 난적 이라크와 홈서 첫 경기 조 1,2위만 카타르월드컵 본선 직행



“The Road to QATAR!”

2022카타르월드컵으로 향하는 여정이 참으로 험난하다. 한국축구가 중동의 거센 모래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통산 11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39위의 한국은 1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칼라룸푸르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 주춤에서 이란(31위), 이라크(68위), 아랍에미리트(UAE·73위), 시리아(79위), 레바논(93위)과 A조에 편성됐다. 한국이 역대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중동국가들과만 경쟁하는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한국은 9월 2일 이라크와 홈 1차전, 7일 레바논과 원정 2차전을 시작으로 이듬해 3월까지 최종예선을 펼친다. 10월에는 시리아(7일·홈)와 이란(12일·원정), 11월에는 UAE(11일·홈)와 이라크(16일·원정)를 만난다. 이어 내년 1월 27일 레바논과 홈경기에 이어 2월 1일 시리아 원정을 떠나고, 3월 24일 이란과 홈경기에 이어 29일 UAE 원정으로 최종예선을 마친다.

아시아에 배정된 카타르월드컵 본선 티켓은 4.5장으로, 각조 2위까지는 본선에 직행하며 3위는 플레이오프(PO)를 거쳐 대륙간 PO까지 통과해야 한다. 한국으로선 반드시 조 2위 안에 들어야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어느 팀도 만만하지 않다. 2010남아공월드컵부터 4회 연속 최종예선에서 마주치게 된 이란은 물론 UAE, 이라크, 시리아도 굉장히 끈기롭다. 이미 2차 예선에서 겨룬 레바논 또한 쉬운 상대는 아니다. 역대 전적에서 한국은 이란에 9승9무13패로 열세이지만 UAE(12승5무2패), 이라크(7승11무2패), 시리아(4승3무1패), 레바논(10승3무1패)에는 앞서있다.

이동부담도 크다. 2차 예선의 일부 잔여경기를 특정 국가에서 통합 진행했던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최종예선만큼은 기존 방식대로 홈&어웨이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한국은 매달 1회씩, 총 5차례 중동 원정을 다녀와야 한다. 반면 상대국들은 한국 원정을 제외하면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점이 있다.

중동 특유의 비매너와도 싸워야 한다. 선제골이 중요해졌다. 중동국가 다수가 자신들이 앞선 상황에서 가벼운 총돌에도 그라운드 드래누워 시간을 지연시키곤 한다. 여기에 휘말리면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플레이는 대단히 거칠다. 객관적 전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다. 2차 예선에서 시간지연 등 레바논의 비신사적 행위를 경험한 뒤 “이러면 아시아축구가 발전할 수 없다”고 일갈한 벤투 감독으로서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벤투 감독은 조 주춤 직후 AFC를 통해 “약체가 없다. (결과가) 행복하다곤 말할 수 없다.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를 존중하되,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2면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

• 식용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작품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100% 국산

저온농축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 & 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습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고 깨끗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